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까?

인자야 이 빼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겔 37:3).

:

어떻게 죄인이 성도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망가진 인생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절대로 종교적인 상식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 그렇지요. 좀 더 많은 성경 읽기와 묵상 및 기도 시간을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바쁜 행사를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너무나 적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망각하는 만큼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나 자신이 변했다면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실망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부족과 비례합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 것이라”겔 37:13.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당신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성령이 보여주신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은 그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타락할 수 있는 타락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무덤’이 하나님에 의해 열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겔 37:3)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오늘 묵상의 원제목은 ‘믿기 어려운 질문’(the staggering question)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믿기 어려운 질문일까요? 어떻게 죄인이 성도로 변화되고, 어떻게 망가진 인생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의 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상식은 물론, 성경을 더 읽고 더 묵상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신앙의 오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너무나 적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챔버스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여기에서 오늘의 제목, ‘믿기 어려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망각하는 만큼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나 자신이 변했다면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리고 어떠해야 할까요? 찰스 스펠전 목사님이 [구원의 은혜]라는 책에서 복음 앞에 서야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아주 좋은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유명한 미술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그리는데, 그 그림 안에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인물을 넣어 기념을 삼고자 했다. 그리하여 이 미술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청소부 한 사람을 택했고 그 낭만한 차림의 청소부가 잘 어울릴 만한 적당한 장소도 골라 놓았다. 그리고 이 미술가는 청소부에게 “나의 화실에 오셔서 내 그림의 모델이 되어 주시면 후한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 청소부는 약속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 화실로 나왔지만 다시 자기의 일터로 보내졌다. 왜냐하면 그는 깨끗이 면도하고 머리도 단장하고 또 말끔한 옷차림으로 왔기 때문이었다. 미술가에게는 그 그림의 배경에 어울릴 청소부가 필요했지 말끔한 신사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복음도 죄인으로서의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 외의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개혁을 기다리지 말고 속히 구원받으러 나오라.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오늘 묵상은 번역된 제목과 본문 말씀 사이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다른 주제가 연관성 없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굳이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가리키며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믿기 어려운 일이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타인을 향한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말이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에게 실망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영적인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당신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성령이 보여주신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은 그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타락할 수 있는 타락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 날 수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믿기 힘든 질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을 때, 우리는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믿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무덤이 하나님에 의해 열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열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아 내는 것도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마른 뼈다 귀와 같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타인을 향해 쉽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묵상 질문 지금 당신을 실망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당신보다 못한 사람일까요?

묵상레시피 | 로마서 9:15-29 + 에스겔 37:3

공흘과 자비, 구원의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15-18절)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22-24절)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25-26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에게도 적용됩니까? (27-29절)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흘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느니라(18절)

하나님의 자비와 공흘은 조건부가 아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 공로, 조건이 아니라 공흘의 원천인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선악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선하든 악하든 그분의 구원사에 특정 개인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목적에 맞게 쓰실 수 있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22절)

하나님의 인내는 비단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방을 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욘4:2).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차 이 ‘인내’를 이방인의 경우 심판을 위해 죄가 축적되는 기간으로, 본인들의 경우 하나님에 훈육하고 연단하는 기간으로 달리 받아들였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공흘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를 통해 열렸다고 선포한다(24절). 진노의 그릇이 될 사람과 공흘의 그릇이 될 사람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구원 백성으로 선택되는 것은 종족적, 종교적 배경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